



世纪韩国语系列教材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韩国 现代文学 作品选读

한국

현대문학

작품
선독

● 韩梅 韩晓 编著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韩国现代文学 作品选读

한국 현대문학 작품 선독

韩 梅 韩 晓◎编著



北京大学出版社
PEKING UNIVERSITY PRESS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现代文学作品选读/韩梅,韩晓编著. —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0.5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ISBN 978-7-301-17179-0

I. 韩… II. ①韩…②韩… III. ①朝鲜语—阅读教学—高等学校—教材②文学—作品—简介—韩国—现代 IV. H559.4:I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10)第 080688 号

书 名: 韩国现代文学作品选读

著作责任者: 韩 梅 韩 晓 编著

责任编辑: 宣 瑄

标准书号: ISBN 978-7-301-17179-0/H · 2501

地 址: 北京市海淀区成府路 205 号 100871

网 址: <http://www.pup.cn>

电子邮箱: ccxuan@hotmail.com

电 话: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65014 出版部 62754962

印 刷 者: 河北滦县鑫华书刊印刷厂

经 销 者: 新华书店

787 毫米×1092 毫米 16 开本 13.5 印张 280 千字

2010 年 5 月第 1 版 2010 年 5 月第 1 次印刷

定 价: 28.00 元

未经许可,不得以任何方式复制或抄袭本书之部分或全部内容。

版权所有,侵权必究

举报电话: (010)62752024 电子邮箱: fd@pup.pku.edu.cn

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21世纪韩国语系列教材》专家委员会

主任委员：

安炳浩 北京大学 教授

中国朝鲜语 / 韩国语教育研究学会会长

张光军 解放军外国语学院亚非系主任 博导

教育部外语教学指导委员会委员

大韩民国国语国文学会海外理事

张 敏 北京大学 教授 博导

牛林杰 山东大学韩国学院院长 教授

委员：

金永寿 延边大学朝鲜韩国学院院长 教授

苗春梅 北京外国语大学亚非学院韩国语系主任 教授

何彤梅 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主任 教授

王 丹 北京大学外国语学院朝鲜(韩国)语言文化系主任 副教授

韩国专家顾问：

闵贤植 韩国首尔大学国语教育系 教授

姜信沆 韩国成均馆大学国语国文系 教授

赵恒禄 韩国祥明大学国语教育系 教授

总 序

中韩建交之初，北京大学出版社出版了全国25所大学联合编写的韩国语基础教科书《标准韩国语》。在近十年的教学实践中，这套教材得到了广大师生的认可和欢迎，为我国的韩国语人才培养做出了积极的贡献。随着我国韩国语教育事业的迅速发展，广大师生对韩国语教材的要求也越来越高。在教学实践中，迫切需要一套适合大学本科、专科等教学的韩国语系列教材。为此，北京大学出版社再度荟萃韩国语教学界精英，推出了国内第一套韩国语系列教材——《21世纪韩国语系列教材》。

本系列教材是以高校韩国语专业教学大纲为基础策划、编写的，编写计划基本上囊括了韩国语专业大学本科的全部课程，既包括听、说、读、写、译等语言基础教材，也包括韩国文化、韩国文学等文化修养教材，因其具备完备性、科学性、实用性、权威性的特点，已正式被列为普通高等教育“十一五”国家级规划教材。

本系列教材与以往其他版本教材相比有其鲜明特点：首先，它是目前为止唯一被列入“十一五”国家级规划的韩国语系列教材。第二，它是触动时代脉搏的韩国语教材，教材的每一个环节都力求做到新颖、实用，图文并茂，时代感强，摆脱了题材老套、墨守成规的教材编写模式，真正实现了“新世纪——新教材——新人才”的目标。第三，语言与文化是密不可分的，不了解一个国家的文化，就不能切实地掌握一个国家的语言，从这一视角出发，立体化系列教材的开发在外语教材(包括非通用语教材)规划中是势在必行的。《21世纪韩国语系列教材》就是在这一教学思维的指导下应运而生的。第四，本系列教材具有权威性。由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会长、北京大学安炳浩教授，大韩民国国语国文学会海外理事、中国韩国语教育研究学会副会长张光军教授，北京大学张敏教授，山东大学牛林杰教授组织编写。参加编纂的中韩专家、教授来自北京大学、韩国首尔大学、北京外国语大学、韩国成均馆大学、山东大学、解放军外国语学院、大连外国语学院、延边大学、青岛大学、中央民族大学、山东师范大学、烟台大学等国内外多所院校。他们在韩国语教学领域具有丰富的执教经验和雄厚的科研实力。

本系列教材将采取开放、灵活的出版方式，陆续出版发行。欢迎各位读者对本系列教材的不足之处提出宝贵意见。

北京大学出版社

2007年4月

目 录 목 차

제1과 시: 「진달래꽃」외 5편	1
第1课 诗歌: 《金达莱花》等5首	
제2과 소설: 「빈처」	9
第2课 小说: 贫妻	
제3과 소설: 「배따라기」	24
第3课 小说: 船歌	
제4과 소설: 「병어리 삼룡이」	38
第4课 小说: 哑巴三龙	
제5과 소설: 「탈출기」	50
第5课 小说: 逃出记	
제6과 시: 「거울」외 5편	59
第6课 诗歌: 《镜子》等5首	
제7과 소설: 「백치 아다다」	66
第7课 小说: 白痴阿达达	
제8과 소설: 「동백꽃」	79
第8课 小说: 山茶花	

제9과 소설: 「무녀도」	~87
第9课 小说: 巫女图	
제10과 소설: 「별」, 「소나기」	~108
第10课 小说: 《星》、《骤雨》	
제11과 소설: 「실비명(失碑銘)」	~125
第11课 小说: 失碑铭	
제12과 시: 「국화 옆에서」외 5편	~137
第12课 诗歌: 《在菊花旁边》等5首	
제13과 소설: 「수난이대」	~144
第13课 小说: 受难二代	
제14과 소설: 「젊은 느티나무」	~155
第14课 小说: 年轻的毛榉树	
제15과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174
第15课 小说: 首尔, 1964年冬	
제16과 소설: 「서편제」	~193
第16课 小说: 西便制	

제 1 과

시 : 「진달래꽃」 외 5편

[작가 소개/作家介绍]

한용운(韓龍雲, 1879~1944년), 호 만해(萬海), 1879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향리**에서 **한학**을 배웠다. 26세 때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 후 일본에 건너가 불교와 서양철학을 공부한 후 중국과 **시베리아** 등지를 **방랑하다**가 1913년 귀국했다. 1919년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것으로 인해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섰다.

한용운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친 시인이다. 그의 시에는 독립사상과 불교사상이 예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의 많은 시가 작품에서 “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님”은 잃어버린 조국, 민족, 자연, 사랑, **불타** 등을 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시는 **관념화** 경향을 서정성 속에서 효과적으로 **응축**시킴으로써 뛰어난 산문적 정서를 확립하였다.

이상화(李相和, 1901~1943년), 호 상화(尙火), 무량(無量)등이다. 1901년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1918년 중앙학교를 **수료하고**, 1919년 3·1운동 때 학생운동에 참가했다. 1922년 『백조』지에 「나의 침실로」 등 시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오게 되었다.

이상화의 작품을 보면 서정적 자아가 어둠의 현실을 등지고 동굴과 밀실 속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정적 자아가 어둠의 현실을 뚫고 나온 경우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상화는 시대의 고통과 개인의 고뇌를 극복하고 식민지 현실에 대한 시적인식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김소월(金素月, 1902~1934년), 본명은 정식(廷湜), 1902년 평안북도 구성군 구성면에서 태어났다. 1915년 오산학교에 입학한 후, 거기서 문학의 스승인 김억을 만나게 되어 그의 지도 아래 시 창작을 시작했다. 1922년 『개벽』에 「진달래꽃」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하고** 「금잔디», 「먼 후일」 등 중요한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1926년부터 작품 발표를 중단하고 여러 사업을 해봤으나 모두 실패했다. 1934년 김소월은 독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소월의 시적 특징은 전통시의 기본 골격인 형태상의 **정제성**과 율격적 정서, 그리고 **절제된** 시어의 농축을 자유시 속에서 효과적으로 계승한 것이고 독창적인 시형식과 탁월한 어휘 구사로 민족적 **애환**을 **극대화함**으로써 민요에서 보이는 민족 정서를 되살려 놓았다는 것이다.

[단어 해석/单词解析]

1. 향리 : 고향이나 고향 마을 乡里
2. 한학 : 한문학 汉文学
3. 출가하다 : 속세를 떠나서 중이 되다 出家
4. 시베리아 :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북아시아 지역 西伯利亚
5. 방랑하다 :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다 流浪
6. 복역하다 : 징역을 살다 服刑
7. 왕성하다 : 한창 성하다 旺盛
8. 불타 :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부르는 말 佛陀
9. 관념화 : 대상에 관한 명확한 정신적 표현 抽象化, 观念化
10. 응축 :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쌓여 있음 凝缩
11. 수료하다 : 일정한 학과를 다 배워 끝내다 修完全部课程
12. 등단하다 : 문단(文壇)에 처음으로 등장하다 登上文坛
13. 정제성 : 정돈하여 가지런한 성격 整齐性
14. 절제되다 :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다 节制
15. 애환 : 슬픔과 기쁨 悲欢
16. 극대화하다 : 아주 크게 하다 极大化

[작품 해제/作品解析]

「먼 후일」: 1920년 『학생계』 1호에 발표된 작품이다. 사랑에 대한 **열망**과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애정시이다. 이 시의 가장 큰 매력은 상대방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다려온 것을 ‘잊었노라’로 표현하는 **반어적** 진술에 있다. **반복법**과 **대화법**으로 작품을 성공시키고 하나의 연 속에서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공존하는 것도 이 시의 특징이다.

「진달래꽃」: 1922년 『개벽』 25호에 발표된 김소월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이 시는 민요적 율격을 취하여 승화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다. 반복적인 **리듬**과 음악성이 돋보이고, 7·5조의 음수율, 3음보 **토속어**의 활용, **각운**의 의도적 배치, 반어와 **역설법** 등 다양

한 표현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토속적 **사투리**와 사랑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것이 높이 평가된다. 또한 한국 여성의 전통적인 미덕인 순종이 기저에 깔려있으면서도 내면으로는 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님의 침묵」: 1926년 간행된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되어 있는 한용운의 대표작 중의 한 편이다. 현실을 떠나 가버린 “님”,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님”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의 ‘님’은 잃어버린 조국, 혹은 부처, 애인 등으로 볼 수 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거나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 한국 시에 자주 나타난 “이별의 정한”에서 벗어나 “희망”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알 수 없어요」: 1926년 간행된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시의 **표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는 알 수 없는 세계의 **심오함**과 **유원한** 절대자의 본체를 추구하고, 번뇌하며 구도하는 자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노을 등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통해 절대자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대화체 수법을 사용하여 연마다 ‘입니까’로 끝맺음으로써 시적 운율을 잘 살리고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1926년 『개벽』 70호에 발표된 이상화의 대표작이다. 이 시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 **울분**과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 정신을 노래하고 있다. 일제 하에서 봄을 맞는 **착잡한** 심정을 **암묵시킴** 첫 행인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구절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마지막 행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어 지금은 들을 빼앗겼지만 아름다운 봄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나타낸다.

[단어 해석/单词解析]

1. 열망: 열렬하게 바람 **热切盼望**
2. 반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 **反语, 反话**
3. 반복법: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수사법 **反复法**
4. 대화법: 대화의 형식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수사법 **对话法**
5. 시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 과거·현재·미래가 있음 **时制**
6. 정한: 정과 한 **情与恨**
7. 리듬: 음의 장단이나 강약 따위가 반복될 때의 그 규칙적인 음의 흐름 **节奏**
8. 토속어: 그 지방의 특유한 말 **当地话, 土话**
9. 각운: 시가에서, 구나 행의 끝에 규칙적으로 같은 운의 글자를 다는 일 또는 그 운 **脚韵, 每行的最后一个音节押韵**
10. 역설법: 역설을 표현 수단으로 하는 수사법 **悖论法**

11. 사투리 : 방언,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언어 方言
12. 시사하다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다 启发, 提示
13. 표제 : 제목 标题, 题目
14. 심오하다 :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고 오묘하다 深奥
15. 유원하다 : 심오하여 아득하다 悠远
16. 울분 : 답답하고 분함 또는 그런 마음 郁愤, 愤懑
17. 착잡하다 :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 复杂
18. 압축시키다 : 물질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그 부피를 줄이다 压缩

[작품 원문/作品原文]

먼 후일

김소월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 때에 “잊었노라”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이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여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켜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뽏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14. 가쁘다: 몹시 숨이 차다 气喘吁吁
15. 젖먹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婴儿, 吃奶的孩子
16. 갑치다: 경망하게 행동하다, 서두르다 着忙
17. 맨드라미: 계관화, 잎과 꽃으로 불로색소를 추출할 수 있고 관상용으로 재배하기도 하는 비름과의 한해살이풀 鸡冠花
18. 들마꽃: 양생 마꽃 野生麻开的花
19. 아주까리: 피마자 蓖麻
20. 지심 매다: 김매다 除草
21. 신명이 지피다: 사람에게 신령이 통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되다 通神

[연습 문제/练习]

1. 「진달래꽃」과 「먼 후일」두 작품에 나타난 김소월 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 「님의 침묵」과 「알 수 없어요」는 산문체 시인데 운율을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3.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어떤 표현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제 2 과

소설 : 「빈처」

[작가 소개/作家介绍]

경북 대구에서 태어난 현진건(1900~1943년)은 1912년에 일본 도쿄에서 독일어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 중국 상해 호강대학 독일어학부에서 수학하면서 문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19년 그는 대구에서 이상화, 백기만 등과 함께 동인지 『거화』를 발간하고, 1920년 『개벽』 동인지에 단편소설 「희생화」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장하였다. 이듬해에는 사실주의 경향이 짙은 「빈처」를 『개벽』에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소설은 그의 **출세작**이자 문단인들과의 교류를 이끌어 낸 작품이다. 이후 1922년 그는 박종화, 이상화, 나도향 등과 함께 『백조』 동인지를 창간하여 문단의 **중견**이 되었다. 같은 해 무능한 지식층을 **풍자**한 「술 권하는 사회」를 발표하고 1923년 「할머니의 죽음」, 1924년 「운수 좋은 날」, 1925년 「B사감과 러브레터」 등 다수의 단편을 창작하였다. 그 후 일제 탄압이 **고조되면서** 그는 역사소설 창작에도 몰두하여 「적도」, 「무영탑」, 「흑치상지」 등과 같은 장편 소설을 남겼다.

그는 한국 문학사에서 리얼리즘을 개척한 선구자로 한국 신문학 초창기를 빛낸 작가이며 김동인과 더불어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정립**자이다.

[단어 해석/单词解析]

1. 출세작 : 예술계에서 인정받는 지위를 얻게 한 작품 **成名作**
2. 중견 : 어떤 단체나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 **中坚, 骨干**
3. 풍자 :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諷刺, 挖苦**
4. 고조되다 :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진다 **高涨**

5. 정립 : 바로 섬. 또는 바로 세움 成立, 确立

[작품 해제/作品解析]

1921년에 발표된 「빈치」는 가난한 무명작가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내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영위한다. 부부 둘이서 서로 위로해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작가의 신변을 그린 것 같아 이 소설은 작가의 신변 체험 소설로 분류된다.

작중의 ‘나’는 지식에 목말라 중국과 일본에도 다녀왔지만 소설 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재주도 없어 한 푼도 벌지 못한다. 가게는 그저 아내가 전당포에 옷가지들을 맡겨 빌려 온 돈으로 **꾸러질** 뿐이다. 이 작품은 극적인 사건은 없지만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사건을 통해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를 보여 준다. ‘나’는 이런저런 불만 없이 ‘나’를 믿고 따르는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 반면 잘 사는 처형은 가난한 아내와 대조를 이룬다. 작가는 헌신적인 ‘나’의 아내와 물질적 가치를 따지는 처형을 대비시켜 당시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작가 자신의 내면적 가치관도 드러낸다. 또한 ‘나’와 아내가 처한 궁핍한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당시 사회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이러한 세계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단어 해석/单词解析]

1. 전전긍긍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战战兢兢
2. 꾸리다 : 일을 추진하여 처리해 나가거나, 생활을 규모 있게 이끌어 나가다 操持, 操办, 收拾
3. 내조 : 아내가 남편을 도움 内助
4. 생생하다 : 바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명백하고 또렷하다 活生生的, 鲜活的

[작품 원문/作品原文]

1

“그것이 어째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하다가 물어보았다.